

군산,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

'지엠 군산공장 인수' 명신 전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 국가산단에 2550억원 투자 643명 신규 고용 창출 효과 2025년 15만대 생산 목표

군산이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1년여만의 성과다. 전북도는 19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중회의실(2층)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주)명신 박호석 부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주)명신은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노력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특히 (주)명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와 초기생산시설 등 2550억원을 투자, 38만평 규모 공장을 재가동함으로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면 64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의 대표기업인 (주)명신과 전북도, 군산시와의 투자협약식이 19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박호석 (주)명신 부사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투자협약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명신은 군산국가산단에 2550억원 투자, 부지 38만평, 643명 신규 고용 창출하여 향후 15만대의 글로벌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명신이 속한 MS그룹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견 기업이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과 인도 등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차체 제작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산공장 생산라인은 비교적 최신 설비인데다 도장 공정까지 갖

진 만큼 기존 설비 활용도가 높아 전기차 생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신이 속한 MS그룹은 향후 R&D와 함께 완성차업체의 위탁을 받아 주문 지향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5년 안에 자체 모델을 개발, 2025년에는 연간 15만대의 전기

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군산시도 명신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명신이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하루빨리 군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인인 해당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나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명인들은 '명불허전', 전북 외 지역의 우수한 공연단체로 그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 특색을 살려 공연을 구성하는 단체나 예술가는 '아우름'에 속한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연행 중심의 문화재 단체나 개인, 마당놀이 공연이 가능한 단체나 개인은 '가온누리', 신진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연단 중 실력을 인정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신인 무대는 '도담도담'으로 배치했다.

지방정부 행복정책 제도화 '머리 맞대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정책 심포지엄 개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행복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해의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제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행복정책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전주시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박관정 박사는 "주민의 행복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행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될 행복지표 개발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에는 전주에서 '지방분권과 주민행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행복정책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총행복 정책에 대한 국가적 의제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2019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공연'이 오는 7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19일 (사)전통문화마을에 따르면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한 상설공연인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 도민의 문화적 품격에 부합하는 고품격 전통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신(新) 명불허전'을 주제로 열리는 공연을 위해 도내 역량 있는 전통 예술 공연 단체와 예술인들을 선정,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공연' 내달 5일 개막

9월 7일까지 매주 금·토 오후 8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서 전라도 정도 1000년 맞아 전국에서 주목받는 출연진 구성

수준 높은 출연진으로 구성했다. 13년의 전통을 이어온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 찾아가는 공연으로 완주·군산·무주·정수 등 4개 지자체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시·군별

편차를 보이는 문화 예술의 풀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도민 문화향유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월별, 회차별 주제와 방향을 적용해 출연진과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7월 '야행', 8월 '열정'을 설정해

한여름 밤 무더위를 잊게 해줄 신명나는 공연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신인부터 명인까지 역량을 갖춘 예술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해진무리, 명불허전, 아우름, 가온누리, 도담도담이라는 모듬을 나눴다. 먼저 '해진무리'는 도내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예술가 중 실력이 검증된 단체나 개인, 우리가락 우리마당 출연 단체 중 평가 우수 단체로 평가받은 단체나 개

이 밖에도 도민들의 참여 무대인 '열린 무대'를 운영, 도내 각계각층에서 전통 문화 예술을 즐기고 동호회 등 활동 중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무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2007년부터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우수 공연 단체로 선정됐다. 주관 단체인 전통문화마을은 전국 운영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